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Nov. 01. 2026
(통권 1130호)



# 오늘의 말씀

## "관계"

은혜가 우리 사이에 피어날 때

[요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연결은 많지만, 관계는 외로워진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즉시 연락하고 수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많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부족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보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관계는 사랑 받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약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실까요?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새롭습니까? '새로운'은 헬라어 [καινός(카이노스, kainos)]로, 시간적인 새로움뿐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사랑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입니다. '같이'는 [καθώς(카도스, kathōs)]로, '~와 같이', '~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의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과 앞으로의 실패까지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서는 "내가 사랑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이지만, 복음의 순서는 "먼저 사랑받았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람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요 13:1~11).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는 서로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베드로도, 배반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좋을 텐데…"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준다면…" 물론 변화가 필요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할 때, 관계는 끊임없는 평가와 수정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의 부족함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요 13:34).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 이전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에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상대방을 하나의 단점이나 잘못으로만 규정하지 않게 합니다.

**[고후 5: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시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내 기대에 얼마나 맞는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권면하며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 사랑은 통제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할 때,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되 지배하지 않고, 권면하되 정죄하지 않으며, 섬기되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위험한 관계로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진실과 책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사랑은 우리 사이에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로써'라는 표현은 헬라어 [ἐν τούτῳ(엔 투토, en toutō)]입니다. '이것으로', '이것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알아보는 중요한 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갈등,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서 보아야 할 것은 갈등이 전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진실을 지키며 사랑을 배워 가는 모습입니다.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과 진실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을 버리지 않고, 진실한 관계는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던 자리에서 이해가, 경쟁하던 자리에서 격려가, 무관심하던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 줄 아름다운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말과 태도에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맺는말 ~ 은혜는 우리 사이에서도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관계를 만들어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관계 속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기대에 맞추려는 마음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우리 사이에서도 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긍휼」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상처 입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모 ~ "은혜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
A.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관계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B.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진실 안에서 바라보고 섬기게 하소서.
C.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존중하고, 격려하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